광주 동명동 카페거리 상생방안 찾나

쓰레기·소음갈등 해결 위해 지자체·주민·상인 협의체 구성
의견 수렴 후 내년 3월 상생협약 체결하고 모니터링단 운영

동명동 주민 A씨는 최근 이웃에 들어선 술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술집 손님들이 무단으로 A씨의 사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루 평균 30명이 A씨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떠들면서 간접 흡연, 소음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담배꽁초라도 치워달라고 술집 측에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상가 앞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항의를 묵살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B씨는 카페 영업을 목적으로 옆집에 신축 중인 3층 건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자택담벼락 안으로 신축 건물의 철구조물이 넘어오거나 기와와 유리창 일부가 깨지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할 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 B씨는 하소연할 곳 없이 속만 썩이고 있다.

쓰레기·주차 등으로 주민·상인·방문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동구 동명동 문제〈광주일보 2018년 10월4일자 6면〉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상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

4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동명동은 이색적인 카페·술집 등이 들어서며 젊은층 사이에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소음·공해·주차·쓰레기 등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주차공간 부족 등 불만을 토로했다. 동구는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약, 재정·인력 부족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명동 갈등·분쟁 유형은 고성방가·무단주차 등에 따른 상가·주민 간 갈등,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웃 주민(원룸밀집지역) 간 갈등, 일조권·소음·재산권 침해 등 건축현장·주민 간 갈등 등 크게 3가지다.

구는 이달 22일까지 전문가·활동가·공무원·상인·주민 등 10명이 참여한 중립 조정기구(협의회)를 만들어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기초(전수) 조사, 설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 사례, 의견을 수렴·분석하고 2월부터는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안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3월에는 동명동 상인·거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주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살핀다.

협의회는 분쟁조정 능력과 법률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동명동 장기 거주민, 상가 운영자를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동명동 상가는 대부분 세입자로 이뤄져 상인회가 없고 피해를 입은 주민 대표격도 없어 갈등을 중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협의회를 통해 상생 협약이 체결되고 잘 지켜진다면 갈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서 5·18 모독 집회…"제정신이냐"

시청앞서 매달 북한군 개입 주장 집회에 시민들 원성

광주시청 앞에서 버젓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는 집회가 매달 한 차례씩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무대에 오른 연사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회원이 주최하는 집회가 시청 앞 인도에서 지난 9월 13일, 10월 5일에 이어 지난 2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금남로에서도 집회를 갖기로 해 시민들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20여 명 정도로,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이 주최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5·18 유공자 명단이 왜곡됐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엉뚱한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응을 할 경우 기다렸다는 듯이 좀 더 과한 행동이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데도 광주시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집회 참가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음 수준의 노래와 연사 발언을 계속하면서 시청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시청을 찾은 정모(54)씨는 "타지에 찾아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참석자들의 수준이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섬진강 물 사용료 소송 광양시가 이겼다

법원 "수자원공사 61억 줘야"

광양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섬진강 물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이 건설한 다압취수장에 섬진강 하천수 등을 취수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했다"며 "공익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사용료 감면은 관할 관청의 재량에 달렸고 수자원공사의 요금 징수 자체는 수익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자원공사가 비영리사업이나 하천 관리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하천법상 감면 대상도 아니다"며 "그동안 내야 할 사용료를 면제받고 수도사업으로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하면 광양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1976년 광양시 다압면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 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여수시·광양제철·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해왔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하천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2013~2016년까지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36억4000만원과 지난해 사용료 24억 8000만원 등 총 61억여원을 부과했다. 수자원공사는 광양시의 뒤늦은 사용료 부과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만2세 아동 7명 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수십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여·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81차례에 걸쳐 만 2세인 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들의 다리를 때리거나 서 있던 아이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2세 여아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간식을 넣어줬는데 뱉었다며 2세 남아의 입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뺨을 손으로 1~2회 때린 적도 있었다.

박 판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괴롭혔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실서 남고생 성추행한 교사 해임 정당"

교실에서 남자 고교생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은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오전 모 고교 교실에서 진행된 성격검사 시간에 B군과 C군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잡고 만지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수준의 윤리·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을 성추행했다"면서 "A씨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학생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고교생인 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고물품 공유장터 열렸네 광주비엔날레와 함께하는 북구 우리두리 공유장터가 3일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렸다. 주민들이 중고물품을 판매·교환하는 행사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여자는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4년형 확정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연합뉴스

"자녀 학원시간 맞추려고"…주차장 새치기하다 폭행까지

쌍나팔

○…자녀의 학원시작 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서 새치기를 하려던 50대가 이를 말린 60대 주차장 관리요원을 폭행해 경찰서행.

○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관리요원 B(64)씨의 목 등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는 것.

○…A씨는 자녀의 학원에 가기 위해 이 빌딩 주차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녀의 학원 시작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주차를 기다리고 있는 2대 이상의 차량을 제치고 들어가려다, B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한 것 같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51959	1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03 중흥에스-클래스1단지 104동 21층 2103호 71.7165㎡	아파트	238,000,000 238,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 5857	1	순천시 해룡면 도롱리 150 397㎡ 동소 150 가동 29.25㎡ 36㎡ 나동 주택100.41㎡ 제시외 주택일부 등 27.39㎡	대 창고	177,132,010 177,132,0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8타경 5260	1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5 1동 2층 201호 84.9158㎡	다세대	151,000,000 151,000,000	
2018타경 52044	1	순천시 풍덕동 886-3 제1층 제101호 49.65㎡	다세대	68,000,000 68,000,000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 4496	1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1453 1372㎡[문미향 지분330/1372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6,400,000 26,4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5154	1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787 1243㎡[김준현 지분1/3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4,143,000 4,143,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5208	1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182 902㎡	답	22,550,000 22,5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734	1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256 122㎡	대	2,806,000 2,806,000	
2018타경 6164	1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620 972㎡	답	15,552,000 15,55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6409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273-13 1201㎡	임야	37,231,000 37'231'000	
2018타경 51928	1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698-59 56㎡	대	12,488,000 12,488,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18타경 52228	1	보성군 회천면 화죽리 521 337㎡	대	7,414,000 7,414,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18타경 52402	1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552 387㎡[최용일지분4/11전부.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2,251,680 2,251,68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	동소 598 840㎡	답	17,117,850 17,117,85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수목제외
		동소 728-1 1969㎡	답		
		동소 740 186㎡	답		
		동소 739-1 93㎡[물건번호2:최용일지분4/11전부]	답		
[자동차,중기]					
2018타경 52464	1	사용본거지:순천시 황전면 덕계길 96 [봉덕리] 등록번호:07도0143 차명:GLE350 d 4 Matic 연식:2016	자동차	70,000,000 70,000,000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45순천자동차매매상사
[기타]					
2018타경 6089	1	선적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해수호 어선번호:1304002-6467704 선질:에프.알.피 총톤수:2.51톤 진수년월일:2013.2.25	선박	20,856,200 20,856,200	보관장소:여수시 국동항
2018타경 7723	1	선적항:수문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유상호 어선번호:0906003-6467708 선질:에프.알.피 총톤수:2.62톤 진수년월일:2009.5.29	선박	27,187,700 27,187,700	보관장소:여수시 묘도7길광양포마을앞포구
2018타경 52150	1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15 [제2동] 70.68㎡ 제시외 창고 0.99㎡	사무실및관리실	1,173,884,020 1,173,884,0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기계기구포함,컨테이너및LPG저장소제외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17-6 1654.9㎡	공장용지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15 [제1동] 873.68㎡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11. 1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11. 26.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